第七千七百四十六號 (1945·12·21 第三種郵便物認可) (1946·8·18 許可番號第二五號) (水曜日) 조선일보 THE CHOSUN ILBO. 檀紀四二八一年八月十一日 (日刊)

朝鮮日報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illegible]
編輯局長 文東彪
發行所 서울市太平路一街 朝鮮日報社
電話本局 編輯局 三三八五 營業局 三三八四
月定購讀料 貳百圓

國軍設立·美撤退
移讓實務十六日開始
李大統領의 國民支持要請

李大統領은 十日 行政權移讓問題에 對하야 다음과같은 談話를 發表하였다

우리가 이때까지 獨立國家를 回復하려고 해온것은 國權回復을 爲한것인데 只今은 美國과 여러다른 友邦들의 政府가 이 우리의 뜻하는바와 같다 지금은 政權移讓이 實際進行되는 中이니 우리 三千萬은 四十餘年동안 잃어버렸든 疆土와 獨立을 恢復하는 이날에 누구나 感激함을 마지않을것이다 그러나 自初로 總選擧와 政府樹立에 反對하는 人士들이 있어 모든 事實이 아닌 말을 造作煽動하는 弊가 있어 實權없는 虛名으로만 政府를 行使한다 라고 한다는 煽動이 많은 모양이다 이에 對해서 나는 全民族에게 宣告하노니 美國政府나 우리人民이나 全的으로 政權移讓키를 決定지을것이오 몇몇 友邦에서도 다 이것을 協議하고 하로바삐 進行하기를 內定하고 있는것이다 이에 對하야서 조금도 疑心이 없을것이다 萬一 變更이 있다면 나를 믿어서 國立完成에 成功이 못된다면 나는 決코 協議치 않을것을 民族이 다 믿어주어야 할것이오 絶對한 支持와 擁護가 있어야만 이 時期에 絶對成功할것이다 政權移讓으로 말하면 政府現在大小官公吏를 나가라고 하고 모든 새사람으로써 한다면 爽快하고 迅速할듯하나 이것을 行할 必要는 없고 行할 事務도 못되는 것이다 政府에 財政과 物産과 書類와 모든 所屬權利를 넘겨 말을적에 조그마한 商會를 移轉할적에도 物資名單과 財政額數를 나가는사람과 드러오는사람이 서로 앉어서 주고받을적에 調査成文한것을 서로 署名해 놓고 주고받어야 物件의 有無를 責任지는 사람이 있을것이니 全國의 財産과 主權을 移轉하는때에 조곰이라도 混亂이 생겨서 넘겨주는사람도 責任이 없고 넘겨받은사람도 責任이 없다면 이에서 더 큰 危險이 없을터인으로 民國政府와 美軍政과의 代表들이 모여앉어서 事務를 먼저 넘겨맡고 그 다음에 또 條理대로 進行할것이며 國防軍設立과 占領軍撤退의 事務에도 UN決議에 依해서 條約을 定하고 또 이 條約을 定하는대로 民國政府와 美軍司令長官이 同時에 이를 公布해서 進行할것이다 그中에는 警察統衛部事務도 包含하야 移讓하는 實務가 今月十六日부터 實施될것이오 內容으로도 至今 全部結束되여있다 (寫眞은 李大統領)

統促分裂危機에 直面
三個派로 對立
內部矛盾性漸次表面化

南朝鮮新政府樹立에 따라서는 政界의 動向은 微妙한바 있어 與黨格으로 新黨運動이 擡頭하고 있는 反面에 旣成政黨團體에도 不遠하여 再編成이 豫想되는바인데 世稱中間派의 聯盟體인 統一獨立促進會가 分裂危機에 直面하고 있다

即 同促進會는 第二次南北協商支持派와 現狀維持派와 南朝鮮新政府參加派의 三派로 分裂될 危機에 直面하고 있는데 이 端的表現으로 金奎植博士는 別項과같이 UN總會에의 派遣代表를 拒否했고 第二次南北協商조차 否認하고 이에 參加한 者를 處分할것까지 言明하였다 그리고 이에 對하여는 全혀 不知의 事實이라고 言明하였는데 其實은 第二次南北會談에의 開催經緯는 六月二十九日부터 七月四日까지 平壤에서 第一次會談에 參加했든 民聯傘下 諸政黨團體代表는 公式非公式如何를 不拘하고 參加했으며 韓獨黨代表만 不參하였든것이다 그런데 이에 앞서 北朝鮮側으로부터는 金日成 金科奉兩氏의 六月十日附 書翰으로 兩金氏에게 第二次會談을 六月二十三日 海州에서 開催하자고 提議하였든것이다 그런데 金博士는 回翰으로 南朝鮮現實에 鑑하여 北行이 困難하니 北朝鮮에서 選擧를 實施하여 南朝鮮國會에 남겨둔 議席百名을 派遣하여 이를 中心으로 南北會談에 代行하여 統一策을 協議하자는것이였다 이로 보아서도 金博士가 第二次南北會談開催에 關하여 公私翰에 接한 일이 없다고 否認하는것은 民衆에 對한 欺瞞이라 하여 同促進會幹部側에 物議가 되어있으며 또한 UN參加問題도 金九氏와의 主張과는 矛盾되고 있음을 如實히 立證하였다 더구나 統一促進會構成에 있어서도 七·八十政黨團體를 網羅云云하나 其實은 統一獨立運動者協議會推進에 있어 勞働黨·柳林氏派와 對立되자 이 系列을 除外하고 統一促進會를 結成했으나 勤民 民主韓獨黨等은 形式上으로 一二個人을 包攝한데 지나지않으며 幹部人選等에 있어서 常務委員十二名의 名單은 果然 南北統一을 云謂하고 各政黨團體를 網羅하였다는 機構의 代表人物로는 到底히 볼수없으며 兩金氏의 秘書陣에 不過하다는것이 또한 一部에서의 指摘 非難이 되고있다 如何間 이렇게 「統促」은 確固한 當面目標가 없이 오늘날에 이르러 分裂危機에 直面한것이며 그의 今後動向가 注目되는바라 한다

金博士談
國聯行을 拒否
出席不可能性에 立脚

金奎植博士는 十日 記者團의 諸質問에 다음과같이 答辯하였다 (寫眞은 金博士)

問 UN總會에 統促代表로 參席한다는데 언제쯤 出發할것인가

答 이問題는 統促結成大會에서 決議되였지만 第一次中執會議에서 나는 南朝鮮의 民衆代表가 가기어려우리라는것을 力說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本人을 首班代表로 選任하였으나 其後 第一次常委會議席上에서 拒否하는 意思를 表示했기 때문에 더 말할 必要가 없다

問 그러나 金九氏는 釜山에서나 仁川에서 貴下가 派遣된다고 言明하였는데

答 그것은 第一次中央委員會에서 決定한것만 알고 其後 내가 不接受한다고 말한것을 듣지못한 까닭일것이다

問 北朝鮮政權樹立에 對한 見解는

答 金九氏와의 共同聲明에 充分히 指摘發表한바도 있지마는 北朝鮮의 일은 지금도 全혀 모르며 所謂 第二次(連席會議인지) 南北協商인지하는 私翰이나 公翰의 通知는 個人으로나 또는 따로 받은 일이 없다 그럼으로 本聯盟傘下團體이고 員들이 參加한 일이 있다면 나로서는 누가 가 어느때 어떠케 갔지도 모르고 또는 委任證이나 代表證을 發行한 일이 없다 그럼으로 北朝鮮에 따로히 政府가 서는데 參加한 本聯盟傘下團體나 個人은 審査處分하기로 되였다

美大使朝鮮向
到着後韓美共委開催

【워싱톤十日發AP合同】南朝鮮政府에 對한 美國의 大使로 內定된 「존·무쵸」氏는 九日 華府를 出發하였는데 約十日後에 서울에 到着하게될 豫定이다 그러고 南朝鮮政府大統領 李承晩博士는 「하ー지」中將에 對하여 新政府는 南朝鮮의 政府를 接受할 準備가 되어있고 이 目的을 爲하여 韓美共委를 開催할 時日이 成熟하였다고 말하였다 한다 그런데 同韓美共同委員會는 美政府側의 密接한 支持下에 美側代表 「무쵸」氏 「두룰라이트」氏及 「헬믹」少將에 依하여 서울에서 開催될것이라 한다 그러고 美占領軍의 撤退問題는 許多한 行政問題가 解決된 後에 協議될것이다

朝鮮等서 撤兵
美共黨選擧綱領

【뉴욕十日發RP共立】美國共產黨大會에서 採擇된 美共黨의 選擧綱領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美國民은 一九四八年度의 選擧를 앞두고 明白히 決斷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그들 將來의 運命即 平和냐 戰爭이냐 民主主義냐 「파시즘」이냐의 어떤것으로든지 確定的決定이 나는것이다 美國은 海外로부터 如何한 곳에도 威脅되고있지 않는데 왜 美國에는 戰爭의 宣傳소리가 요란한가 共產黨은 中國、朝鮮、希臘에서의 兩個撤兵과 프랑코 西班牙와의 外交的經濟的 關係의 斷絶을 要求한다

李副統領最初로 參席
移讓問題討議
國防交通遞信三次官任命

國務會議

連日開會되는 國務會議는 昨日에도 午前九時半에 第五次會議가 開催되었다 이날 會議는 李大統領以外에 特히 水原서 休養中이든 李副統領參席下에 開催되였는데 이날 副統領의 參席은 同會議最初의것이며 討議案件은 遞信、國防、交通三部의 次官決定과 美軍政으로부터 行政을 移讓받을 國家機構問題를 中心으로 討議하였는데 當日付로 任命된 李貴淳公報處長發表에 依하면 遞信部次官에 白泓均氏(韓獨黨) 國防部次官에 崔用德氏(在重慶時中國航空司令官) 交通部次官에 康亨燮氏(以北出生美國오하이오洲立大學機械科卒) 各各任命決定되였다 한다

그런데 軍政移讓을 받을 新政府機構案에 對해서는 同日午前十二時부터 法制處長 兪鎭午氏 企劃處長 李順鐸氏 商工部次官 任文桓氏 外 過政人事行政處職員數人이 法制處長室에서 會合하야 討議를 開始하였는데 新政府에 移讓될 過政機構中 物價行政處 土地行政處 人事行政處 物資行政處及 食糧行政處를 어느部로 歸屬시키느냐는 問題인데 特히 注目되는것은 敵產管財處가 完全히 新政府에 移讓되느냐 않되느냐는것이며 또 마땅히 移讓되어야한다면 敵產關係는 財務部 商工部中에 어느部에 歸屬시키느냐는 問題로 多少論議가 있는듯하다 그러나 何如間에 過政으로부터 移讓받을 機構案은 昨日中으로 討議를 完了하고 今明間 各部別로 行政事務引繼를 開始할것이며 이에따라 地方行政事務引繼도 漸次始作될것이라는데 正式行政機構移讓式은 八月十五日 解放記念日에 擧行될것이라 한다

킹加首相辭意

【오타와八日RP共立】過去二十九年間 「카나다」首相으로 있든 「마켄지·킹」氏는 六日 自由黨大會에서 辭退의 뜻을 表明했는데 候補者가 決定될때까지 官界에서 直時 辭退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政府育成要望
李副統領談話發表

療養次라고 水原에 滯在中이든 李始榮副統領은 九日下午二時 歸京하여 武橋莊에 留宿中인데 十日에는 上午九時半 第五次國務會議에 參席하여 「健康關係로 會議에 不參하더라도 大統領 國務總理가 萬事를 잘 處理해달라」고 簡單한 人事말하고 退席하였다 그리고 李副統領은 中央廳에서 다음과같은 談話를 發表하였으며 또 上午十一時 武橋莊으로 往訪하는 記者와 다음과같은 問答이 있었다

그동안 몸이 피로워 療養次 村生活을 했다 世上에서 여러가지로 떠드는 소리로 斷片斷片은 들었으나 事實이 아닌 일도 있다 내가 바라는것은 이 國會에 大韓民國完全建立에 全力을 다하기 바라며 破壞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國務會議도 여러번 못나왔으며 이번에 나와서 大統領 總理外 國務委員諸氏에게 두어가지 勸勉의 말슴을 하고 몸이 피로워서 자조나오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責任진 여러분들은 生命을 걸고 나가리라고 믿으나 或시 나하야서 「遏人欲存天理」라는 根據에 나간다면 三千萬의 힘이 한데 뭉처질줄 안다 特히 言論人은 似而非한 言論을 하지말기 바란다

補强與否未詳
記者團과 問答

問 國務會議에 參席할 豫定인가

答 健康關係로 不定이다

問 第四次까지의 國務會議決議에 對하야 見解如何

答 大統領 國務總理는 自己職能을 잘 處理했을것으로 생각한다

問 內閣補强論이 擡頭하고 있는데 對策及見解如何

答 目下擡頭한 補强論은 꼭 實施되지 않을수없다

問 靜養次로 再次離京할것이라는 說이 있는데 事實인가

答 考慮中이다 (寫眞은 副統領)

蘇聯案을 採擇
다뉴브會議第七日

【모스크바十日發RP共立】「다뉴브」河國際會議는 七日 「우크라이나」代表가 議長으로 되여 續會되였다 이날 會議에서 「유ー고」代表는 蘇聯이 提案한 「다뉴브」江航行規定에 關한 條約草案을 今後의 一切의 議事의 原案으로 하자고 主張하였다 「유ー고」代表主張에 佛蘭西代表가 同意하자 [illegible] 自己要求를 固守하지 않었다 이리하여 蘇聯案은 蘇聯、美、英、「우크라이나」、「체코」、「유ー고」、「루마니아」、「항가리」、「불가리」의 贊成投票로 議事原案으로 採擇되였고 佛蘭西代表는 棄權하였다

聖地再戰鬪憂慮
베伯리氏에 報告

【로ー드스十日發UP=朝通】今般 「이만」 「에로살렘」 「알렉산드리아」 「텔라비브」 「하이파」 等各地를 五日間 訪問視察한後 當地에 歸還한 國聯 「파레스티나」紛爭調停官 「베르나돗테」伯은 國聯事務總長 「트리그ー·리ー」氏에 對하여 聖地事態에 關한 如左한 報告를 提示하였다

「아랍」及 猶太兩側은 相互間 信賴를 缺如하고 있다 停戰協定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戰鬪가 再開될 憂慮가 있다 「파레스티나」의 空氣는 緊迫한 狀態에 있다 따라서 나는 適當한 停戰監視機構의 必要性을 强調하는바이다 「파레스티나」의 空氣는 緊迫하나 兩民의 政府가 停戰을 繼續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戰爭防止程度?
莫府交涉의 展望

【런던十日發UP朝通】四大國外相會議가 再開되리라는 모든 樂觀主義는 獨逸問題에 關한 東西間合意는 絶對로 있을수 없다는 念慮에 依하야 大幅的으로 去勢되고 있다 西歐列國의 一部有力當局의 見解도 이에 合致되고 있으며 그들이 기껏 바라는바는 全世界를 爲하여 現事態가 戰爭其他 災禍로 惡化함을 防止할수 있는 姑息的活路에 지나지 않는다 表面上 希望이 없다는 印象을 주는 如斯한 態度는 다음과같은 움직일수없는 事實에 起因되는것이다

一、西方國家는 또하나의 蘇聯衛星國家로 變할것을 알면서 自進하야 獨逸全土를 放棄하지 않는것

二、統一獨逸이 東方에 對抗하야 西方에 加擔하지 않으리라는것을 斷念하지 않으리라는것

三、不幸한 事實이지만 東西兩分狀態로 殘存하는外에 獨逸에 對한 第三方向이라는것은 없다는것

蘇外相西歐側第三次會談
四國會談開催에 努力

【모스크바十日發AFP合同】九日下午五時頃 蘇聯外相 「모로토프」氏는 又復 西歐美英佛三個國外交使節의 訪問을 받고 會談을 하였는데 同 「크레므린」宮會談一時間後에 美國務長官 「마ー샬」氏는 會談이 도 있을것이라고 言明하였다 그리고 믿을만한 消息通이 傳하는바에 依하면 今般會談은 封鎖解除及四相會議開催件에 關한 合意到達努力이였을것이라는바 大概 다음과같은 諸條項에 關한 妥協을 討議하였으리라 한다

一、封鎖解除

二、伯林市에서 東獨貨幣를 通用시키되 西歐側이 受諾할수있는 條件下에서 行할것

三、九月에 豫定되여있는 西獨臨時政府樹立會議即 西歐占領當局側과 獨逸人指導者側과의 會談延期

交涉好轉視

【모스크바十日發AP合同】西歐三個國外交使節은 九日下午 再次 「모로토프」蘇聯外相과 三時間에 亘하야 會談하였는데 이들은 會談內容發表를 拒絶하였다 그러나 三個國外交使節은 獨逸問題其他全歐洲問題에 關한 蘇聯側의 見解를 聽取하였을것으로 觀測되고있다 「스미스」蘇大使 「로버ー츠」英 「베ー빈」外相의 特使 「샤테이뇨」佛大使는 「모」外相과의 會談後 喜色滿面하야 會議室로부터 나왔는데 이들은 各己 會談結果를 本國政府에 報告할것으로 보인다 消息通이 傳하는바에 依하면 今般 「모」外相과의 會談은 過去一週間에 있었든 어떤 會談보담

長春守備再危機
中共軍十個師團이 包圍

【上海十日發AP合同】九日現在의 國共戰況은 如左하다

▲滿洲地區=長春을 包圍하고있는 共產軍의 師團部隊는 九日 長春市에 突入하였는데 激戰後 中央軍에 依하야 擊退되였다 奉天으로부터의 消息이 傳하는바에 依하면 中共軍約十個師團과 砲兵部隊가 長春郊外에 集中하고있다

▲華中地區=漢口來報에 依하면 中共軍은 湖北省西北에 있는 當陽(南京西方約一五○哩)을 占領하고있다고 한다 即 中共軍約五、六千名이 八日 當陽市를 襲擊하야 九日 同市에 入城하였는데 中央軍이 抵抗하고있는지 또는 撤退하였는지에 關하야는 言及이 없다 그리고 中共軍의 當陽占領으로 因하야 宜昌市는 再次 中共軍의 攻擊을 받게될 地位에 있다

▲華北地區=北平中央軍側의 消息이 傳하는바에 依하면 東部河北省共產軍에 對한 中央軍의 攻擊은 相當한 進展을 보이고있다

人事往來

▽南台元氏(東洋醫學會副委員長) 同會全國代表者大會終了人事次來社 ▽姜弼模氏(醫博) 同上

▼李活氏(獨促國民會財政部長) 九日上午十時 三淸洞三五의九六 自宅에서 遭內艱 發靷十三日 正午十時

八面鋒

石梧 李東寧先生의 遺骨이 도라오다 ▲一生을 祖國光復에 바친 先生 드디어 그날을 미처보기前에 重慶旅舍에서 차마 감을수없는 눈을 감으신 先生이다 ▲때에 매디매디 亡國의 痛恨이 매쳤던 革命家의 遺骨이니 解放의 祖國에 無言의 凱旋은 明을 마주 通할 感慨가 自在 ▲그나마 제대로 解放 제대로 光復이면 感激으로 足할것을! ▲疆土는 조개져 두개의 半쪽 政府가 생겨 嚴正한 意味에서 獨立이 까마득한 이땅이 아닌가 ▲國會가 서고 政府를 組織하는 이때에 臨時政府 初代議政院議長의 英靈은 어떻다 할것이냐 ▲하물며 金九先生 母堂의 遺骨이라 一生을 아들의 革命運動을 도왔더니 老齡七十有三에 다시 獨立運動을 展開해야만하는 아들의 품에 도라오는 그 英魂의 悲懷는 어떻다 할것이냐

眼鏡界의 權威
愛眼堂
서울忠武路一街

新案 물쓰시개
장마철에 저진나무, 나쁜숫을 불이기에 고생하시든것도 이제 들어는
쓰기좋고 값싸고 백발백중 잘붙는 「물쓰시개」 가나왔으니 安心하소서
發明特許一三三五番
市內·地方特約店募集
東洋企業公司
종로·東一백화점內
東一百貨店

養榮 濕疹 核結核 淋巴腺結核 肺結核 心臟衰弱 蓐麻疹及諸種出血에는
8.5% 葡萄糖酸 갈슘注射
2cc×10A 10cc×10A
(15용 갈치큠注)
京城新藥 電光③1869·3399

금강잉크 配給實施
當局의 指示에 依하야 今年度 配給잉크를 來九月一日부터 實施하오니 서울地區特約店及地方特約店은 八月末日까지(營所指定申請處)에 申請하야주심을 玆에 仰告함
西紀一九四八年七月二十三日
營業所 서울市西大門區忠正路一街十
金剛化學工業研究所 白

學生募集
興國工業初級中學校
電話龍山(4)一五二〇·一九〇〇·一六三〇
一、募集人員 第一學年第二部(夜間)五〇〇名 第二學年第一部(晝間)五〇〇名 第二部(夜間)五〇〇名
二、出願期間 自八月五日至八月二十五日 서울市龍山區元曉路三街一(遞信學校內)
三、試驗期日 八月二十六日
四、發表時日 八月二十八日午前九時
五、特典 修了後遞信學校에 優先入學을 斡旋함
六、入學願書請求時는 入學試驗經費로 金百圓 先納할것

苗浦學校同窓會
一、時日 八月十一日午後一時
二、場所 苗浦國民學校講堂
十年間中斷되였든 本會를 再出發시키고저 하오니 母校同窓生은 無漏參席을 要望함

風水害慘狀續續判明
卅年來의 初有事
헐벗고 굶주린 罹災民救護緊急

영남 호남지방의 수해는 매년당하는 일이지만 이번수해는 十四년전 갑술년대홍수에 못지않은 큰피해를 입은모양으로 그상황이 속속알려지고있는데 강우량만보드라도 三십년만에 처음있는 폭우라고한다 조선의 홍수는 근대의예로보아 약十년만에한번씩 엄습한는셈인지 저 二십四년전 을축년 큰물과 그후十년만인 갑술년수해는 기억에도 새로운터에 역시 그후十여년후인 이번에 다시홍수해가있었다 이로해서 치산치수는 조선국책의유일한 과제이거니와 이번처참한 수해를보고 신정부에 호소하는자 유족 옷을도벗고 병마와굶주림속에서 아우성치는 수재동포들뿐이않일것이다

그리고 지난三일현재로 판명된피해는 다음과같다 △死亡三八名 △重傷者四〇二名 △輕傷者九八三名 △行方不明一七名 △家屋流失二、六一七戶 △全壞四、一六三戶 △半壞六、一六九戶 △床上浸水二一、六九二戶 △罹災民一七二、二二五名

要救護七萬名
死者만36名、農地被害도極甚

忠南

지난七월二十六일부터 약나흘동안계속하여 나린폭우는 충청남도일대에막대한 피해를주었는데 농사시험장조사에의하면 이번강우량은 六百미리를 돌파하였다고한다 이로인하야 지금까지판명된 피해액은막대할것으로보이고있는데 특히 서천(舒川)을 위시하여론산(論山) 공주(公州) 부여(扶餘) 동금강(錦江) 연안의 인가및농작물의피해가막심하다고한다 현재까지의 피해상황은다음과같다

△死亡者六三名 △重輕傷者七九四名 △行方不明三〇名 △家屋被害三六四戶 △家屋被害二〇五七五戶 △家畜死亡七〇四頭 △農地被害五五三八六町步

그리고 아직도교통및통신은 불완전상태에있어복구는예측하기곤난하다

한편보건후생국에 들어온보고에의하면 구호가필요한 인원은 무려七만명이나된다고한다 그런데도당국에서는 응급구호 대책으로우선 전재고물약一만五백점의의류 침구 식료품등을 이재민에게 분배 하였다는바 이수량은전이재민의三할정도 밖에도라가지않는 형편임으로 중앙당국의시급한 구호원조를요망하고있다

全北

暴雨再襲
救護物資急送

작十일보건후생부 발표에의하면 전라북도에는 제二차로六백七十六미리의 대폭풍우가 재습하였는데 이는三十년이래의 기록으로그피해가막대함으로 보건후생부에서는 이재민을 응급구호하기위하야 제三차로 지난五일 구호용천막의류 담뇨 고무신등 一화차를 현지에급송하는한편 구호파장을 수반으로 「구호반」 「의무반」을 파견하였다한다

國大綜合卒業式
昨日盛大히擧行

서울국립대학교 금년도종합졸업식은 작十일오전十一시문리과대학강당에서 「하ー지」중장 서재필(徐載弼)박사 안호상(安浩相)신문교장관등 내외국 내빈다수참석하에 성대히 거행하였는데 이번 교문을나스는 학부전문부총졸업생수는 무려一천백卅九명에 달하여 선생조국건설의재일군으로 등장하게되였다

(사진졸업식장)

全南

飛禽島堤防이 문어저
萬餘島民의生計는窮地에

지난七일미명의 대폭풍우는 무안군(務安郡) 일대에참상을 이루어 당국의시급한복구를 요청되고있는데그중에도비금도(飛禽島)는 一만三천도민의 생명선인 一만二천간(間) 에달하는 방조제방(防潮堤防)이문어저二천호중 一천여호가 류실되고 거더둔보리四만五천석이침수하여 하로밤사이에 식량과집을잃어버린六천여도민은 산중복까지미러드는 조수를피하야 산봉오리에웅성거리고 있다한다 도민들은물만나가면남녀노소를 미론하고五천명이동원되여 제방구축에진력하고 있다하는데오늘막으면 내일터지는지난한작업과一대 식량난에봉착하야도민은고립무원의궁지에 서게되였다(光州朝通)

暴雨끝에또 渴症난仁川
물한지게十圓式

폭우가 쏘다저도 먹을물없어갈증난인천부민들ー 이번폭우로 경인간상수도가 파괴되여 인천은수도물이 않나와 일대물난리를이르키고있는데 부내송현동모여관주인은 자기집우물물을한지게十원식팔고있는동인천부민의갈증을여실히나타내고있다(仁川朝通)

慶北

水禍는想像以上으로甚大

지난달二十八일부터 쏟아진폭우로말미아마 경북일대에 도내각지의 피해는 예기이상으로 막대한수자에달할것이라하는데 경북도당국에 드러온보고중 문경군(聞慶郡) 과의성군(義城郡)에서만 사자가四十명에달한다고한다 양군의피해상보는 다음과같다

△聞慶=人命死亡二三 행방불명九 중경상九二 가옥피해二〇八 가축피해三六〇 전답류실一七〇五町步

△義城=인명사망二六 가옥피해二九二 가옥류실二三 전답류실一一九町步(大邱朝通)

朝鮮籠球軍 墨軍에惜敗

【런던十日發AP合同】九日의 「올림픽」大會籠球本試合에서 朝鮮팀은 四十三對三十二로 「멕시코」에게 敗北當하였다 試合初期에있어서는 朝鮮팀이 六對五로 「리ー드」하였으나 「멕시코」軍은 依然攻勢로나와 十對六으로 優勢를보이고 그後朝鮮팀의 追隨를 許容치않었다 其他美國은 「우루과이」를 六十三對廿八로 「부라질」은 「체코스로바키아」를 廿八對廿三으로 또佛蘭西는 勝利를各各獲得하였다 그리하야 十一日準決勝戰에는 「멕시코」對美國 佛蘭西對「부라질」이 對戰하게되였다

力道競技에는 李選手第四位

【런던十日發UP朝鮮通信】「올림픽」競技力道部門의金「메달」은 美國選手가 차지하게되였다 身長四尺의 美國「메파ー트」로」選手는 三種의全體擧揚上에서 世界記錄二百「키로그람」을 깨트리고「三百七・五키로」의 新記錄을세웟다 第二位는 英國의「주리언・크레퍼스」第三位는 「호노루루」出의中國人「리처드・톰」이였고 朝鮮의李圭赫選手는 自己體重(一二三封度)의倍가 훨신넘는 一百五十磅을들어 역개위까지올려 觀衆의熱狂的聲援을 받었으나 아깝게도 힘이부치어 끝까지 올리지못하였다 이리하여 李選手는 第四位를차지하게되었다

반탐級拳闘豫選 康選手는無勝負

【엠파이어・다ー크十日發UP朝鮮通】 「올림픽」 「반탐」級拳鬪第一回戰에서朝鮮의康仁錫選手는 比律賓의「에데우르로」選手와對戰하여 無戰勝負의判定을받었다

還元配給排除 秋穀收集令發表

十일과도정부에서는 추곡수집에관한 七월二十九일부법령제 二백十二호를 발표하였는데 이에의하면 동법령은 법률제정시까지 효력을발생할것으로서 특히세농가의 사정을고려하야 환원배급을배제하도록 한것이며 一九四八년九월 一일부터 四九년二월二十八일까지에는 정부기관이외는추곡매매나 신입을엄금하도록규정되고있다

上司命令이라無罪?
李九範不起訴、其他起訴猶豫

사람을죽인 해적단을빨갱이를 죽인것이나 용서한다고석방하고 압수한물품을파러썻으며 홍삼밀조범을잡고도 물건과현금만압수하고는석방하고 생고무사정가격을 위반한 상인을 협박하야 금품을받고는석방한등등의 혐의로 종로서 이구범(李九範)서장 현을성(玄乙成)형사주임외 一명의 경관이 지난 七월二十三일 불구속으로 수사국에서송청되였다함은 기보한바이나 九일서울지방 검찰청에서는전기 이구범서장을 불기소하고 현을성 형사주임외 二명을 기소 유예처분에 부치기로 결정하였다는바 담당 검찰관인 이원희(李元熙) 검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구범서장은 그런사실이없다고 본다는것이며 현을성(玄乙成) 형사주임외 二명은 사실은있으나 임이현직에서물러낫을뿐더러 편취했든금전을 반환하였으며또 국립경찰의 공로자인까닭에관대히처분한것이라한다 그리고특히 서장에관한 살인범 은익혐의사건에대하야서는 상사의명령에의한것이니 본인들에게는 죄가없다는것이 검찰청의견해이며 「상사」란누구냐하는데대해서는 답변을피하고있다

制約에못이겨
搜査局趙、李正副局長辭任

군정하의 관계(官界)에 「그레이샴」 법칙이 그대로적용될을 갈파하고국가민족의 좀인악질경관탐관오리모리배등의 숙청에 용명을 날이던수사국 부국장 이만종(李萬鍾)씨와 표면에는 나서지않코 뒤에안저 치밀한 두뇌로서 착착 사건을 처리하야 오날의수사국을 만드러노흔 국장조병설(趙炳契)양씨는재차습래한난국에직면하자 十일드디여다음과같은 요지의사임사한장을남기고물러나게되였다

민족전체의 시대적요청아래 책임을완수하고저시간과정력과 정열을경주하야 최대한도의노력은하였으나、완전한성과를 거두지못하고 선량한국민의기대에어그러젓슴은 자책의감을금치못하는바이나 금번조각의 인물구성을일별하고 우리의양심을살이기에는 너무나환경과 조건이불리하다는것을 자각하기때문에 사임을결의하였다 실례를들면 전임수사국에서 적발한수도청고문치사사건에있어 군정의책임자도안인신정부의 일원이 불필요한 간섭과 제약을가함으로써 사건취급상중대한 지장을초래하였다는 전례에비추어 직접권한이없는 군정에도 간섭함으로써 부패분자의 구명운동에 동분서주하였거든하물며 자기권한하에 있는 신정부에있어서는 가히추측할수있다고 인정되는까닭이다 또한당해사건의최고책임자의 一인이 각료의一원이되였다는 사실에비추어 앞으로 정의감을살이어서 정열과 양심을발휘하기에는 너무나 객관적제약성이 강압할것을자각한나머지 금일사직으로사표를제출한바이다

앞으로는快晴繼續
40餘日의장마는개였다!

약四십여일에걸처 줄기차게내린 장마비도 九일부터는맑안날씨로개이게되였다 즉 서울중앙관상대발표에의하면 그동안 일본동방해상과 소련남동쪽에서떠돌고 만있던고기압은 지난九일부터 대폭적이동을개시하야 이에따라황해바다를 중심으로 저회하고있던 저기압이 동쪽으로이동하고있음으로 앞으로는 입추(立秋)와 함께맑은 날씨가 계속될것으로보이고있다한다

敵産土地는어데로?
日人의所有란掠奪로된것 …(2)…
吳石山

오로지 이러한 掠奪과 利貸的 詐取의方法으로서만 朝鮮內에서의 그들의 土地所有는 年年히 더욱더욱 擴大되여왔는데 露日戰爭을지난 一九〇八年頃에는 벌서그所有面積이 東拓을 除하고도 五萬二千餘 또所有者總數는 六百九十二名을 헤이게되였든것이다

한便 東拓은 어떤가 一九〇九年에 日本東京에서 設立된 이掠奪會社는資本金一千萬圓(二十萬株)으로 처음發足했는데 그中三百萬圓(六萬株)은當時의 韓國政府에 强要하야 田畓各五千七百町步式을 額으로 換算해서 現物出資케했든것이다 그럼으로 이東拓會社란것은 처음부터 朝鮮의 農民들에게掠奪한土地財産을 基本資金으로하야 成立하였든것이다 다시말할것도없시 이와같이해서 東拓을 비롯하야 其他日人의 侵略者들에게 土地를빼앗긴者는 누구보다도 朝鮮의 農民들이였다 貴族과兩班 官僚들은 도리혀 侵略者들과합께 土地收奪에 參加할수가있엇스며 그反面 小土地所有者! 다시말하면 自作農民들의 小有私田地와 部落或은民族의共有地는 併呑과掠奪의對象이되였든것이다 그러나以上말한것은 그들의土地掠奪에 있어서의 初期의築蹟임에 不過한다

所謂併合以後 全國的으로强行된 朝鮮土地調査業이야말로 侵略者들의土地掠奪으로 더욱大規模로促進하는 機會가되였다 周知된바와같이 前後八個年에걸처서 二千余萬圓의莫大한 經費를써가면서强行한이土地調査業에 있어서는所謂申告主義란것이 基本方針이되엿다 卽「土地의所有者는 朝鮮總督이定한 期間內에 그住所와氏名及 所有地의 所在、地目、字番號、四標、等級、地積結數를 臨時土地調査局長에게 申告할事」로 되였다 그럼으로 누구던지 그期間內에 再申告를하지못하면 所有權이否決되고 그대신먼저申告한者의 所有로될수가있었다 期間이란것은 겨우三十日이였는대 當時의實情으로보아大多數의農民등은 이三十日內에完全한 手續을밟불수가없었으며 또門中 或은洞中의共有地와 같은것은 어면個人의名義로 갑작이申告할수도없는 性質의것이였다 이런틈을타서 日人들은 各處에서가장豐饒한沃土를골라서는 各各自己의名義로 申告하기시작했다 또하편으로는 從來의宮屋土 驛屯土等이國有地로 編入되였는대 이것도그後大部分이 日人들에게拂下或은 貸與가되였다 要컨대 前日人土地所有란것은이와같이 徹頭徹尾掠奪와 詐取의産物이였다 또그들의이러한 掠奪로말미암아 土地를빼앗긴者도主로農民들이였다 (계속)

団体動靜

▼任永信商工部長의外交報告大講演會를 女子國民黨主催로 八月十二日午前十時 서울市公舘에서開催(但入舘料五圓持參)

新刊紹介

◇새한민보 七月上中旬號 서울市太平路一街三一 새한민보社發行 定價一〇〇圓

◇불레의詩抄 林學洙譯 서울市會賢洞二街四二의七 珊瑚社發行 定價六〇圓

◇佛蘭西詩選 異河潤譯詩集 서울市明洞二街四五 首善社發行 定價二百圓

日氣豫報

南東風이불고 대체로흐렸으나 때때로개이겠다

콜럼비아超巨作 明朗映畵

女医의新婚生活

嫉妬를싸고 도는 新婚生活을그린輕快明朗映畵!
「太平原」의바ー바라・스탠워主演
「運命의만할인」의헨리・폰다
웨스ー리・러글스監督

10日開封 11時開場 繼續上映

國都

백장미부란되 高級洋酒

大昌洋行 서울市忠武路四街三三番地 電話本局(2)二四八六番

化粧品部

世界的家庭藥 朝鮮멘소레담
서울市西小門洞五三●製造元
朝鮮멘소레담本舖 電光2274番

白民樂劇團
新作發表公演
(晋州라千里길에絶讚을받은)
悲歌劇 罪와運命
前後篇大會十二景
郭曙民作 路山人演出
바리에티쇼ー 노래시른꽃馬車 全二十景
12日부터
朝鮮劇場

同和
救急胃腸藥 活命水
서울市西大門區巡和洞五 株式會社 同和藥房 電光(3)二七一九・四八一

神農氏像

特效藥 늑막염●담
慈母
(자 친)
大東醫藥研究所
서울市寬勳洞 112
朝興銀行寬勳洞支店右側
東光藥局 採藥所

長安에서第一가는
珍味屋개장
百聞이不如一見 한번잡순분아니면 珍味屋聲價를 모르십니다 맛좋고 값싸고 親切한珍味屋 개장만 잡수시면 伏中에虛弱하신 몸이곧回復됩니다
世宗路一七四 遞信部後門側 珍味屋

特約店募集中
물안탄소주
鷄龍
25度 30度 45度
서울市南大門路五街四七番地
忠南釀造株式會社서울事務所
電話本局(2)五〇五一番
本社 大田府仁洞